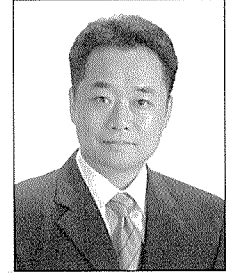


우리시대의 얼굴



장 덕 현*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의 광장(forum)이다.” 도서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ALA(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의 서두를 장식하는 명제이다. 이 선언의 정신은 그 어느 누구도 인종, 출신, 나이, 관점 등의 이유로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차별받아서 안되며,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이 선언은 냉전으로 인한 사상적 통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오늘 지식정보사회가 파생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 차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욕망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distinction)는 사회구성원들 각각의 욕망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할 만한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에게 여지없이 편견의 잣대를 갖다댄다.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며 새롭게 등장한 축매제가 정보화이다. 이제 자본주의사회는 정보화라는 표상을 내세우며 ‘정보’를 중심으로 기존의 차별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부의 독점은 정보의 독점으로 재현되고, 정보는 상품화되어 시장을 통해 소비된다. 시장은 대규모 기업에 의하여 통제된다. 이들과 정부의 복합체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세상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곧 유비쿼터스 세상이 탁킨다고도 한다. 그러나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로 대표되는 기업/정부 주도의 정보화는 정보와 정보수단을 시장에 내어놓음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획득 기회를 전적으로 개인적 역량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따른 정보입수와 이용의 편차가 커지면서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기존의 차별구조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문화적 태도로 굳어지고 있다. 가령, 컴퓨터를 다루는데 서투르다고, 혹은 휴대전화기에 부가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들은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디지털을 ‘돼지털’로 알아듣는 시장 아주머니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TV 광고를 배경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볼 때, 정보를 중심으로 한 차별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적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다. 즉,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자원을 개발, 관리, 축적하여 경제적 형편이나 출신,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서비스의 범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그 가장 강력한 실행도구는 누가 뭐래도 공공도서관이다. 지역의 공공도

* 우리 협회 도서관윤리위원회 위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dchang@pusan.ac.kr

서관을 중심으로 지역내 NGO, 사회복지기관, 공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레퍼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도서관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향후 도서관정책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하부에 장애인, 노인, 도시빈민층,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 각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별 세부 방안이 연구된다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이 정보소외를 겪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는 빈곤한 하드웨어적 정보환경 이전에 자라온 환경과 오랫동안 습득하여 누적해 온 독특한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은 정보에 대한 인식과 외부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 외부의 정보나 도움을 추구하는데 소극성을 띠도록 하며, 이러한 태도가 정보사회에서도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상에 외부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갈 수 있는 통로(channel)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외부와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일상 속에서 그의 인식과 태도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허물고자 하는 노력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소외계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해 왔으며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들도 책읽기를 즐겨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독서공간에 대한 욕심도 있다. 영화 관람이나 강연회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 문화강좌에 대한 욕구도 있다. 인터넷도 배우고 싶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장을 통해 그들의 일상에 점차적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그리하여 그들의 고립적 삶의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 소외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지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공공도서관이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도서관'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단초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